



## 오승환 “작년 국내 복귀 원했지만 삼성이 거부”

신년 단독 인터뷰 | ‘끝판왕’ 오승환을 만나다



토론토 계약 하기전 삼성측과 접촉  
삼성에선 난색... “집이 사라진 느낌”  
올 시즌 끝난후 삼성으로 가고 싶다

◀ 한국에서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끝판왕’ 오승환(플로리다)의 도장깨기는 무대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돌부처’의 위용을 뽐내는 오승환이지만, 그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한국 복귀다.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에 서운함을 느꼈음에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기나긴 침묵을 깨고 스포츠동아의 신년 인터뷰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오승환.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끝판왕’은 여전히 강력하다.

오승환(37·플로리다 로키스)에게 2018년은 굴곡진 한 해였다. 2014년부터 2년간 일본을 평정한 그는 2016시즌을 앞두고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했다. 2년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뒷문을 지키며 ‘파이널 보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2018시즌을 앞두고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었다. 2월초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이 눈앞이었지만, 텍사스가 오승환의 팔꿈치 염증을 이유로 몸값 깎기에 나섰다. 2017년 다소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 결국 텍사스와 계약을 거부한 뒤 다시 새 팀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내 복귀까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결국 2월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1년 계약하

며 미국 잔류를 결정했다. 시즌 중반 콜로라도로 트레이드됐지만 무대를 가리지 않았다. 2018시즌 두 팀에서 73경기에 출장해 68.1이닝을 소화하며 6승 3패 3세이브 21홀드, 평균자책점 2.63,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무대까지 밟으며 주가를 올렸다. 팔꿈치에 대한 우려를 완벽히 불식시켰다.

지난해 초 맺은 계약의 옵션 조항은 ‘70경기 출장 시 계약 자동 연장’이었다. 오승환은 73경기 출장으로 이를 달성했다. 2019년에도 콜로라도 유니폼을 입게 됐다. ‘마무리 천재’ 오승환이 그리는 선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10월 중순 귀국 후 입을 꼭 닫았던 오승환은 스포츠동아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진심을 털어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알동부’부터 ‘투수들의 무덤’ 이겨낸 돌부처

-계약 불발, 트레이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까지... 길었던 2018년이 끝났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웃음). 시즌 초반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시즌을 치르다보니 다 잊혀지더라. 트레이드도 마찬가지다. 주위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여러 팀에서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인정한 것 아닌가. 무리 없이 한 시즌을 잘 치른 것 같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엔 ‘지옥의 AL동부’로 불린다. 해발 1600m 고지대에 위치한 콜로라도의 홈구장 ‘쿠어스필드’는 투수들의 무덤이다. 두 곳을

1년 안에 연달아 홈으로 쓰는 것은 드문 일이다.

“오히려 동료들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 플로리다 이적 후 동료들이 서로 ‘너도 AL 동부지구에서 한번 뛰어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일종의 미션처럼 여기는 것이다. **쿠어스필드는 확실히 선수들에게 쉽지 않다. 고지대가 익숙하지 않은 원정 라커룸에는 산소 호흡기도 비치돼있다. 원정 경기 전날에는 경기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그날 곧바로 이동한다. 한시라도 일찍 저지대로 가기 위해서다.** 또, 트레이너들이 수시로 물과 음료를 챙겨준다. 그런 풍경들이 신선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토종 골게터’ 박기동, 이적료 5억원에 경남 유니폼 ▶ 4면

‘PMC:더 벵커’ 이선균이 직접 촬영장에 뛰어든 이유 ▶ 14면



새 해  
함께 해  
행복 해

2019년 새해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